

# 忠州 大林山城 考

-‘忠州山城’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최 근 영\*

- 
- |               |                        |
|---------------|------------------------|
| I. 머리말        | IV. 對蒙抗戰地 ‘忠州山城’과의 관련성 |
| II. 城의 위치와 형태 | V. 맺음말                 |
| III. 城의 축성시기  |                        |
- 

## I. 머리말

충주지역에서 고대 삼국시대의 산성으로 확인되는 것은 별첨 「대림산성 주변 성곽분포도」[도면 1]에서 보듯이 土城 2개를 합하여 대림산성, 장미산성 등 10여 개에 달한다. 이들 산성은 『三國史記』의 축성기사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조선시대에 간행된 『世宗實錄地理志』·『新增東國輿地勝覽』·『輿地圖書』·『大東地志』·『忠淸道邑誌』·『湖西邑誌』등의 山川, 古蹟조에 간략한 내용이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이들 산성은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증개축 등으로 축성 당시의 모습은 변화되었고 어느 때에 왜 축성했는지 정확하게 판정할 수가 없다. 단지 산성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성이나 산성의 구조적 형태와 규모, 출토유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리할 수 있을 뿐이다.

---

\* 한국사학회 회장

[도면 1] 대림산성 주변 성곽분포도

충주 지역에 분포된 산성의 공통적인 특징은 첫째, 고대 신라와 고구려간의 남북왕래의 통로로 이용된 육로(계림령과 죽령로)와 수로에 인접한 군사적 요새지에 축성된 점이다. 예컨대, 문경시 문경읍 관음리 경계의 계림현 변에 있는 <한훤령산성>→충주시 살미면 미륵리→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의 <덕주산성·월악산성>→북평리→살미면 신당리→문화리→재오개리→충주시 직동 좌우에 위치한 <대림산성(대림산)과 남산성(금봉산)>→호암동→칠금동의 <탄금대토성>→가금면 용전리·장천리의 <장미산성>→노은면 연하리의 <천룡산성=보련산성>으로 이어지는 路邊에 축성된 성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림산성 인근의 문주리산성과 용관동산성 역시 달천이 발 아래에 보이는 강변 가까이 위치해 있다. 이들은 대림산성과 연계성을 갖고 충주의 서쪽방면 방어의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성의 위치가 한결같이 남한강의 남쪽에 모두 자리잡고 있어 水陸교통이 편리하고 물적자원의 동원이 유리한 군사적 요지에 축성된 점이다.

셋째, 대림산성, 남산성, 장미산성, 보련산성에서 보듯이 규모가 큰 성은 산세가 험준하고 높은 지대를 택하여 관측이 용이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넷째, 성곽의 위치는 대부분 背山臨水의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 적이 쉽게 접근하거나 공격하기 어려운 곳을 택한 점이다.

이제 이들 산성 중 1997년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된<sup>1)</sup> 대림산성과 대몽항전의 격전지인 '충주산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I. 城의 위치와 형태

대림산성(해발 487.5m)은 충주시 살미면 향산리 산45번지 일대의 대림산에 있다. 먼저 대림산성의 지형적 조건을 보면, 대림산은 충주의 鎭山으로 성의 정상부에 오르면 북쪽으로충주시내의 전경은 물론 달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탄금대와 장미산성이 확연히 보인다. 또한 동쪽으로는 충주영액(안림동)·남산성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 계림령과 죽령로의 길목(살미면 신당리→문화리→재오개리→발티재→충주시 직동)을 차단하거나 충주 분지의 사방을 방어하기에 가장 유리한 요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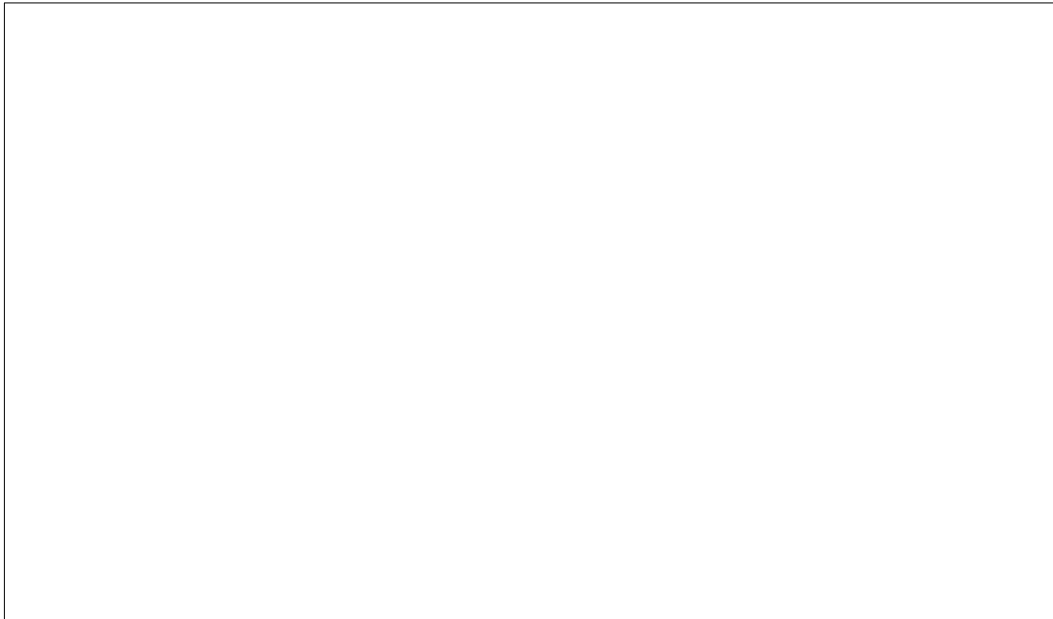
그리고 성의 정상부에 위치한 봉수대는 동쪽의 심항산 봉수(종민동 계명산), 남쪽의 주정산 봉수(상모면 온전리), 서쪽의 마산 봉수(이류면 대소리 봉화산)와 서로 마주 보이는

1) 상명대학교 박물관, 1997. 『忠州 大林山城 정밀지표 조사보고서』.

데 대림산 봉수는 심항산 봉수를 받아 마산 봉수로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편 대림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배후로 하고 위치한 正門方向인 서쪽편은 옛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그 도로의 옆으로는 마치 垓字의 구실을 하는 달천강을 끼고 있고, 그 서벽 아래의 지세는 해발 100m가 넘는 깎아지른 절벽이다. 그리고 동·북·남쪽의 성벽도 산의 경사가 급하여 적의 진입이 어려운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조선조 임경업 장군이 무술 연마차 올라 다녔다는 三招臺도 바로 이곳에 있다.

요컨대, 대림산성은 背山臨水의 형태로 자리잡고 있어 소수의 병력으로 다수의 적을 차단 방어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점은 通溝河를 해자로 하고 있는 고구려 환도성의 자연 조건과 비슷하다고 보겠다.



[사진 1] 달천 건너편에서 본 대림산성 내부 - 서문지로부터의 전경 -

다만 [사진 1]에서 보듯이 西門밖 건너편 쪽에서 성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것이 큰 약점이라 하겠다.

다음은 대림산성의 규모를 살펴보자. 대림산성의 구조적 형태를 보면, 면적은 871,719m<sup>2</sup> (263,695평)이며, 남향의 계곡을 두른 전형적인 포곡식 토석혼축성이다. 성벽의 높이는 대략 4~6m이며, 전체 둘레는 4,906m에 달하는 부정형의 장타원형으로[도면 2참조] 충주 지역

소재의 산성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성벽은 전략적으로 취약한 부분만을 다듬은 돌로 쌓은 곳이 10여 군데 남아 있으나[사진 2, 3] 전체적으로 보아 성벽은 토석혼축으로 되어 있다.[사진 4] 그런데 축성된 성벽의 고도가 최고 487.5m에서 최하 100m로, 그 고도의 차이가 커서 성내부에서 성벽까지의 경사가 심하게 나타난다.[도면 2]<sup>2)</sup> 이 때문에 전체 면적에 비하여 농지 등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은 5,800평에 불과하다. 이렇듯 성벽의 고도차이가 심한 것은 산세가 험준한 남한강 상류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징으로 그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성의 구조를 보면, [도면 3]에서 보듯이 건물지(12)·문지(3)·우물지(3)·봉화대(1)·치성(10)·望樓와 將臺 등 산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성벽의 안쪽에 4~5m 폭의 회곽도[사진 5·6]가 조성되어 있다. 성내의 건물지 중에는 대궐터, 창터라고 칭하는 전설이 전하기도 한다. 성내의 자연환경은 삼면이 높은 산으로 감싸 안정감이 있으며, 특히 수질이 좋고 수원이 풍부한 3곳의 우물과 식수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개울이 있어 성의 요건으로는 손색이 없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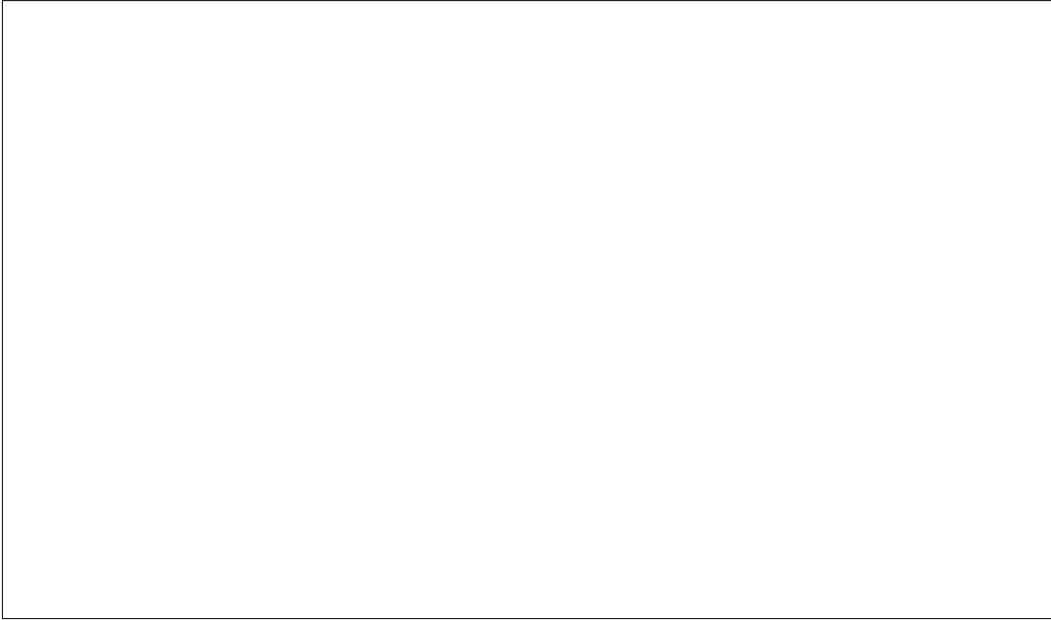
다만 성 내부가 경사지고, 경지면적이 협소한 듯이 보이나 남한강 상류지역에 분포된 여러 성 중 군사와 군마의 주둔이나 식량의 자체 조달 등에 있어 가장 유리한 자연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방어, 차단하거나 장기 항전을 벌이기에는 충주 관내의 여러 성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요새로 볼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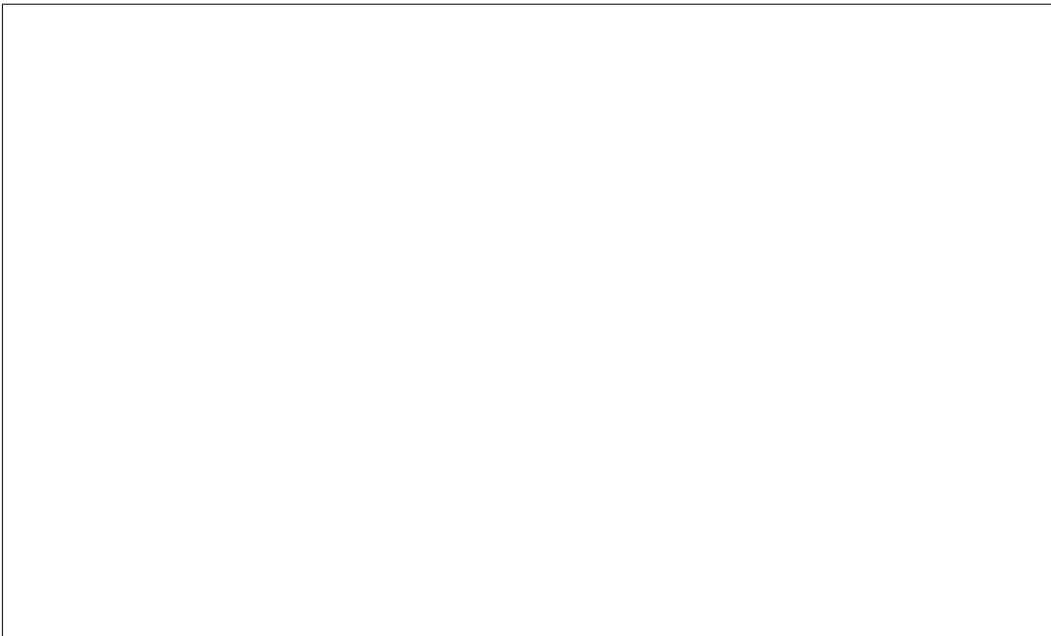
2) 동서, 남북 방향의 산성은 대체로 30도 정도의 경사면을 유지하고 있다.

[도면 2] 대림산성 실측도(동벽 585m, 서벽 538, 남벽 1,555m, 북벽 2,228, 둘레4,90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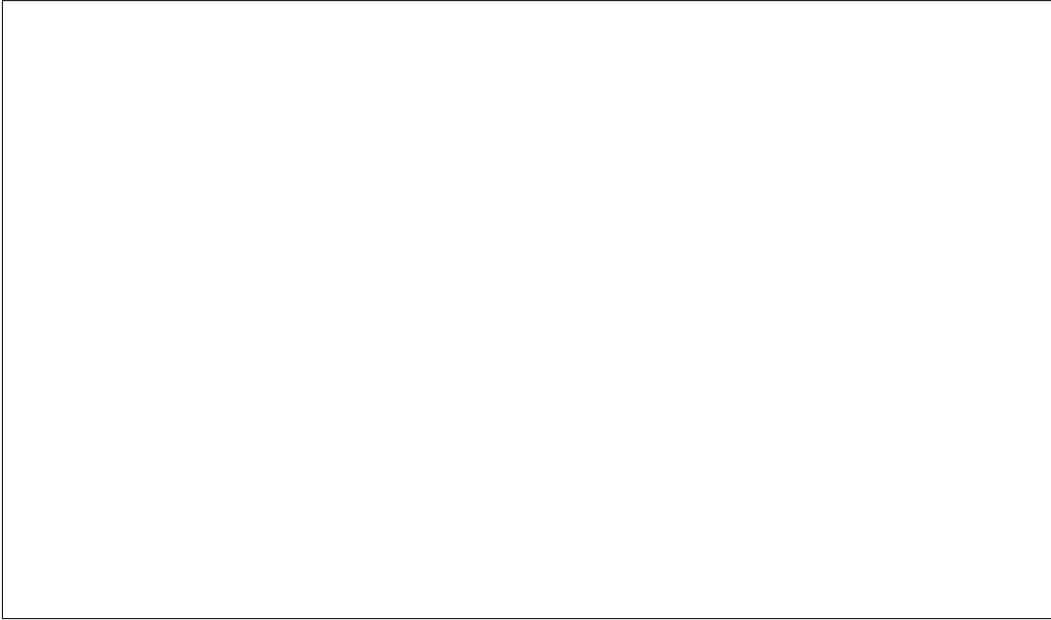
[도면 3] 대림산성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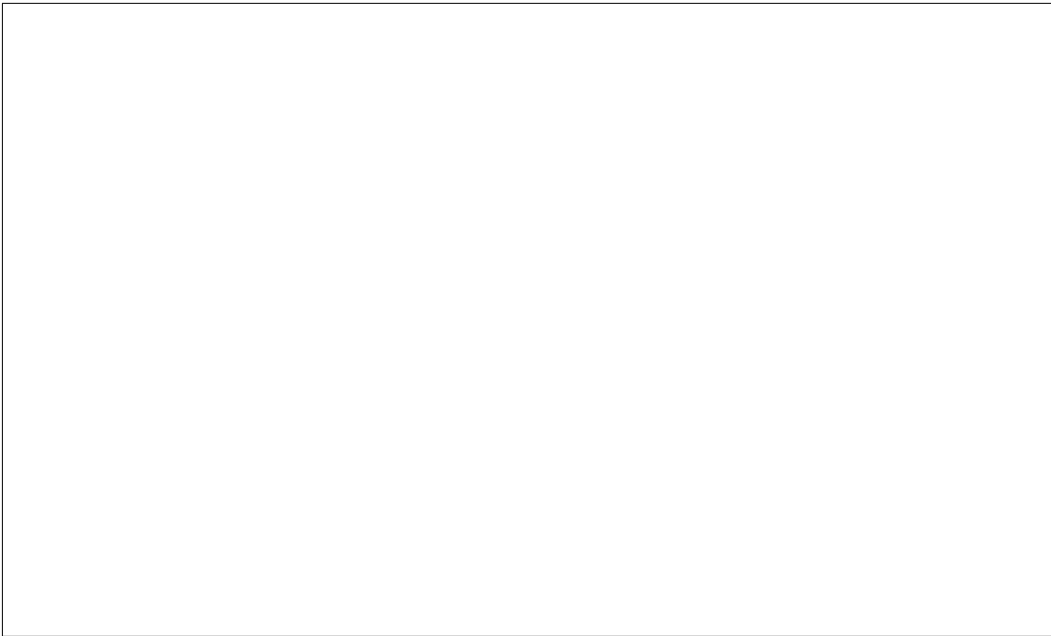
[사진 2] 대림산성 남벽



[사진 3] 대림산성 북벽



[사진 4] 서문지 부분 성벽 단면



[사진 5] 북쪽성벽내의 회곽도(폭, 4~5m)



[사진 6] 동쪽 성벽내의 회곽도(폭, 4~5m)

### Ⅲ. 城의 축성시기

이 성의 축성시기는 단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나 축성의 구조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의거 추측할 뿐이다. 1982년 李元根의 조사 보고에 의하면 성안에서는 신라계 및 백제계의 토기조각이 많이 발견되며, 통일신라·고려·조선시대의 토기, 도기 및 자기 조각이 발견되는데 그 중 백제계의 연질토기 조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그는 삼국시대 백제에 의해 쌓여져서 몇 차례 주인이 바뀐 산성으로 간주했다.<sup>3)</sup>

한편, 1997년 상명대학교에서 조사한 『충주 대림산성 정밀 지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수습된 유물 가운데 통일신라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몇 점의 인화문토기편과 와편 중 회백색과 적갈색 연질의 선조문과 격자문 와편이 상당수 수집되었다. 그러나 이들 토기로 보아 삼국시대까지 올려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이들 기와편 만을 통해 삼국

3) 李元根, 1982. 「大林山城」 『충청북도 문화재지』 322 ; 1989. 『韓國의 城郭과 烽燧』 上(한국보이 스카우트연맹), 469.

시대까지 올려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제시하면서 신라말 호족세력에 의해 축성 되었음을 고려할 수 있으나 고려시대에 축성된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sup>4)</sup>

이에 필자의 생각은 대림산성의 최초 축조시기를 삼국시대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보겠다. 이를테면 첫째, 백제의 수도 한성이 함락된 이후 남한강 상류의 충주 지역의 지배권은 백제에서 고구려로, 다시 신라로 바뀐 사실, 즉 5~6세기에 걸쳐 충주 지역은 삼국항쟁의 거점이 되었다는 점. 둘째, 토석혼축으로 된 성벽은 허술한 면을 가지고 있다.[사진 4참조]. 이 점은 삼국항쟁의 혼란기에 급조한 양상을 보여준다고 판단되는 점.<sup>5)</sup> 셋째, 성내에서 백제·신라계 토기편 등이 함께 출토된다는 사실 등에서 판단할 수 있다.

어쨌든 이 성 역시 지배의 주인이 백제·고구려·신라로 바뀔 때마다 개축, 수리 증축 등으로 초축 당시의 본래 모습을 잃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성에서도 고려·조선시대와 관련을 갖는 와편과 청자, 백자편 등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어 출토되기 때문이다.

#### IV. 對蒙抗戰地 ‘忠州山城’과의 관련성

고려의 對蒙抗戰 때 충주에서 몽고군과의 싸움은 고종 38년(1231년 12월) 몽고 제1차 침입시 이지역 노비출신인 지광수가 노비·잡류별초를 이끌고 몽고군을 격퇴시킨 것부터 주목을 끄는 점이다.

이후 충주에서 더욱 주목을 끄는 대몽항전은 고종 40년(1253년 ; 제5차 침입) 10월부터 12월 18일까지 70여 일간 ‘忠州山城’에서 공방전을 벌려 몽고군의 남진을 차단시킨 싸움이다. 즉 충주지역에서의 대몽항전은 곧 이고장 주민의 직역 수호의 자위적 정신에 의한 승리였다고 보겠다. 그러나 충주산성의 위치에 대한 비정이 지금까지 그 견해가 구구한 실정이다. 예컨대 충주시 남산(금봉산)<sup>6)</sup> 정상부에 위치한 남산성(면적 ; 46,524m<sup>2</sup>, 둘레 ;

4) 상명대학교 박물관, 1997. 『忠州 大林山城 정밀지표조사보고서』, 178.

5) 석축부분의 경우, 성돌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일부 구간의 성벽을 제외하고는 바른층 쌓기를 하지 않은 점, 토석혼축 부분의 경우 성벽의 기단부분만 석축을 하고 그 위쪽과 안쪽은 토축을 하였지만 토축부분은 판축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삭토를 통해 생긴 흙을 할석과 함께 막다짐으로 다져 놓는 것 등이 그것이다.(앞 책, 176)

6) 충주의 ‘南山’은 현재 보급되어 있는 지도(도엽번호 NJ 52-14-01-2, 1996년 인쇄)에 의하면 충주시 직동 산 24-1(해발636m)의 일대에 걸쳐 있는 산으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산이란 명

1,120m),<sup>7)</sup> 충주읍성,<sup>8)</sup> 충북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관내의 월악산(해발 ; 1,097m)의 정상과 기슭에 축성한 월악산성(덕주산성)<sup>9)</sup>, 그리고 충주의 진산인 대림산(해발 ; 487.5m)에 위치한 대림산성 등으로 보는 견해가 그것이다.<sup>10)</sup> 이와 같이 충주산성의 위치에 대한 견해가 분분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문헌 자료와 고고학적 유물이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같이 구구한 견해를 새로이 비정해 보기 위해서는 고문헌과 이미 연구된 성과를 토대로 각 성의 규모와 주변 여건, 전설, 성내의 건물지와 출토유물, 각종 지리지에 언급된 각 城(해당 山)의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추정해 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싶다.

먼저 해당 산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충주 지역 대몽항전과 관련되는 문헌 자료부터 보면 아래의 내용이 참고된다.

- A. 是月 也窟等 圍攻忠州(『高麗史』권 24 세가 고종 40년 10월조 )
- B. 率二城降民 攻忠州城 七十餘日 不下(『高麗史』권 130 李峴伝)
- C. 後爲 忠州山城 防護別監 蒙古兵來圍州城 凡七十餘日 糧儲幾盡(『高麗史』권 103 金允侯伝)
- D. 癸丑車羅大 攻忠州山城 風雨暴作 城中人抽 精銳奮擊之敵 解圍遂南下(『高麗史』권 24 세가 고종 41년(1254) 9월조)

---

칭은 『신증동국여지승람』·『대동지지』 등 조선시대 지리지나 1929년에 간행된 『조선환여승람』(이병연) 등의 충주편 山川條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산이다. 남산이란 명칭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다. 일제시대에 간행된 지리지 『조선환여승람』 충주군 산천조에 '南山'이 기록되지 않은 점과 충주시 용산동에 1942년 개교한 남산초등학교의 교명에 '南山'이란 명칭을 인용한 것을 보면 1940년 전후기부터 지역 주민에 의해 자연스럽게 호칭된 것이 아닌가 싶다.

- 7) 충주공업전문대학교 박물관, 1984. 『충주산성 종합지표 조사 보고서』. 지표조사 이후 연구 성과를 토대로 남산성(일명 금봉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비정, 충청북도 지방 기념물 제31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 8) 차용걸, 1993. 「충주 지역의 항몽과 그 위치」 『대몽항쟁 승전비 건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 발표자료집(충주시민 모임). 당시 읍성의 위치는 지금의 충주 박물관이 있는 옛 충주 군청 자리로 보고 있다.
- 9) 주) 8과 같음
- 10) ① 상명대학교 박물관, 1997. 『忠州大林山城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179~183. 지표조사에 참여한 필자는 최규성과 함께 '대림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앞 책, 179 참조).
- ② 최일성, 1997. 『忠州牧研究』, 상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05.
- ③ 최규성, 1999. 「대몽항쟁의 전승지, 충주성은 어디인가?」 『제11회 중원문화학술회의 발표요지』(예성문화연구회), 12~25.

- E. 當是時 若此城見陷則 其他列堡靡 然席卷者必矣 幸賴月嶽大王 現大威力 密加扶護  
乃克守禦終成萬世之功(『高麗史』 권24 세가 고종 41년 12월조)
- F. 蒙兵入忠州 屠州城 又攻山城 官吏老弱 恐不能拒 登月嶽神祠 忽雲霧風雨雷電俱作  
蒙兵以爲神助 不攻而退 (『高麗史』 권24 세가 고종 43년(1256) 4월조)

위의 자료(A~F)에 언급된 몽고군과 관련되는 城을 분류해보면, '忠州城'(B), '忠州山城'(C~D), '州城'(C·F), '山城'(F), '此城'(E)으로 구분된다. 이로서 본다면 충주에서 대몽항전시 '州城'과 '山城'등 주변의 여러곳에서 산발적으로 방어권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C의 '州城'은 전후의 문맥으로 보아 70여일 항전한 충주산성으로 볼 수 있으며, 자료 F에서 보는 '州城'은 충주읍성으로 간주된다. 그리고 자료B의 '忠州城'은 70여일이나 공격했다는 내용으로 보아 '충주산성'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이렇듯 문헌자료에서 보는 '충주산성'은 충주지역 관내의 고대산성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 지를 확인할 수 없다.

이제 앞에서 본 남산성, 충주읍성, 월악산성, 대림산성 등으로 비정해보는 각 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보자.

첫째 남산성(금봉산성)<sup>11)</sup>부터 살펴보자.

남산성은 충주시내에서 동남쪽 약 4km 지점에 위치한 남산(금봉산) 정상부에 위치해 있다.성의 면적은 46,524m<sup>2</sup>이며, 성의 둘레는 1,120m로 규모가 대림산성에 비하면 1/4에 불과하다. 성이 처한 지리적 위치로 보면, 대림산성과 서로 마주하고 있어 남북 왕래의 거점인 죽령로와 계림령로를 통하는 발티재를 차단 통어하기에 유리한 군사적 요충지에 처해있다.

그러나 남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비정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적하면 ① 성의 규모가 적고 특히 식수원이 부족하여 軍馬와 많은 사람이 함께 城內에서 70여일간 버틸수 없다는 여건이 큰 약점이다. ② 특히 1999년 『충주산성 동문지』발굴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문터 내부와 주변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고려나 조선시대의 것은 찾아 볼 수 없고 거의 6세기 중엽 이후의 신라계 유적에서 볼 수 있는 것들 일색으로 되어 있다'고 하며, '성문의 구

11) 금봉산성은 금봉산에 있는 성을 뜻하는 것이다. 산의 위치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14·『大東地志』 권6·『朝鮮實輿勝覽』 충주의 산천조에 보면 '在州東五里'·'東五里'·'在郡東五里'로 각기 기록되어 있다. 즉 금봉산이 충주군 치소로부터 약 5리 지점에 있다면 그위치는 곧 직동산24-1의 위치에 있는 현 남산에 해당된다. 요컨대 현재 충주지역에서 칭하는 '충주산성'의 명칭은 남산에 있는 성을 충청북도 지방기념물 제31호(1980. 1. 9)로 지정할 당시 붙여진 이름이다.

조와 유물로 보아 신라의 6세기 후반 이후 통일신라 시기에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 산성이다'라고 명기해 놓고 있다.<sup>12)</sup>

이렇듯 앞의 사실을 종합하면 남산성은 새로운 결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는한 70여일 항전한 '충주산성'으로 보기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보겠다.<sup>13)</sup>

둘째, 충주읍성이 '충주산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를 보자.

충주읍성을 '충주산성'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앞서본 자료에 보이는 忠州城(B), 州城(C, F)이 표기된 앞뒤의 문맥을 보면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충주산성 방호 별감 김운후가 병사들에게 '관노를 등록한 장부를 불태워 버리고 또 노획한 소와 말을 나누어 주었다'는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면 70여 일 전투현장이 충주읍성으로 간주되는 州城일 개연성도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에 관한 의문은 윤용혁도 지적했듯이<sup>14)</sup> 전략상 사면이 다 포위된 평지의 邑城(州城)에서 70여 일간을 장기간 항전했다는 것은 전술 전략상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겠다.

셋째, 월악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를 보자.

이에 관한 문헌적 근거를 굳이 찾는다면 앞서 본 자료 중 月巖大王과 月巖神祠의 관련을 갖는 E, F의 내용이다. 윤용혁은 F의 내용에서 '州城을 무찌르고, 또 산성을 쳤다'는 山城을 문맥으로 보아 '충주산성'의 약칭으로 본 것이 그것이다.<sup>15)</sup>

그리고 E의 자료에서 보는 '만일 此城이 함락되었더라면 다른 성들은 반드시 견잡을 수 없이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한 此城과 '월악대왕이 큰 위력을 나타내어 가만히 도와주어 (이성을) 수어하여 마침내 만세의 공을 이루었다'는 '이성'이 '충주산성'일 가능성이 있다고 혹자는 볼수도 있지 않나 싶다.

그러나 E와 F의 자료에서 본 '此城'과 '山城'이 월악산성(덕주산성)으로 봄이 옳다고 할 지라도 E, F의 기사는 고종 41년과 동왕 43년의 사건으로 고종40년(1253) 10월부터 12월

12) 차용걸 외, 1999. 『충주산성 동문지 -발굴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71·73.

13) 근년 차용걸도 남산성 설에 대하여 회의를 표시했고(차용걸, 1999. 「충주지역 성곽의 역사적 성격」 『제11회 중원문화 학술회의 발표요지』(예성문화연구소), 34) 윤용혁도 과거 일반적 견해를 쫓아 남산성을 '충주산성'으로 언급하였으나, 근자 이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의를 표하고 있다(윤용혁, 1996. 「충주민의 대몽항전과 몇가지 관련문제」 『예성문화』16·17, 43). 그리고 남산성의 명칭을 충주산성으로 칭하여 성을 충청북도 기념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충주산성'의 명칭을 남산성으로 고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앞 책, 72 참조).

14) 윤용혁, 앞 글, 44.

15) 윤용혁, 앞 글, 43의 주) 44 참조.

까지 70여 일간 항전한 기록상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다. 이로서 본다면, 70여일간 항전한 기록상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른 사건이다. 이로서 본다면, 70여 일간의 대몽항전지를 월악산성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겠다. 한편 또 다른 문제점을 든다면, 월악산은 충주의 치소로부터 50리나 떨어진 곳이며 행정구역으로 청풍현 관내의 것이다. 즉 충주의 진산이 아닌 월악산을 충주를 대표하는 '충주산성'으로 호칭했다는 점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sup>16)</sup>

그리고 산성내에서 항몽전쟁과 관련지워 볼 수 있는 유물·유적<sup>17)</sup> 등이 발견되지 않는 것이 또한 문제점이다.

다만 월악산성의 경우 험준한 지역에 축성한 거대한 성의 규모(상성=내성, 중성=학소대성, 차단성, 외각성)<sup>18)</sup>나 풍부한 식수원, 남북 왕래의 교통로를 끼고 있는 군사적 요새지로서의 조건은 적으로부터 피신과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볼 수 있다. 그 사실은 신라와 고려 시대에 국가적 규모의 제사처로 영험한 수호신이 있는 신성지역으로 간주한 점,<sup>19)</sup> 鄭滉의 문집인 『進齋集』의 『寒暄關防方略』에 문경 관음리와 충주 미륵리 사이의 하늘재를 요새지로 보고, 월악산에 덕주산성을 쌓고 관문을 만들어 지키도록하고 鎭설치에 대한 규례 등을 언급한 것을 통해 족히 알 수 있다.

끝으로 대림산성의 경우를 보자

대림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 필자의 견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림산성은 충주의 鎭山인 대림산에 축성된 성으로 충주관내의 여러 성중에 그 규모(둘레 4,906m)가 가장 크며, 행정·사법·군사의 중심지인 충주의 치소로부터 불과 4km이내에 위치하여 전략적 이동이 용이한 곳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성의 동북쪽 삼면이 모두 급한 경사를 이루고, 특히 서쪽은 100m에 이르는 깎아지른 절벽이 자연적으로 성벽 구실을 해주고 있으며, 그 아래는 옛 3번 국도를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흐르는 달천강이 해자의 구실을 하고 있어 적의 접근이 어려우며 적을 격

16) 최규성, 앞의 논문, 15.

17) 월악산성은 험준한 지역을 인용, 4겹의 성곽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제 2, 4곽은 조선 후기에 수축된 것이며, 제 1곽은 고려시기의 성곽으로 여겨지고, 제 3곽은 조선 중종때 새로 내성을 쌓았다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차용걸 외, 1999. 『제천 덕주산성 지표조사 보고서』(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55~56).

18) 앞의 책, 33~35. 월악산성은 충청·전라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산성이다.

19) 고종 43년 몽고병이 충주를 침입하여 주성을 무찌르고 산성을 공격할 당시 관리와 노약자들을 월악산성으로 피신시킨 것은 월악산성의 군사적 요새지로서의 조건과 신라시대 이래 국가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는 小祀의 대상지로 삼았던 영산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되하기에 좋은 천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성 아래의 달천강과 도로는 병력의 이동과 군수물자 수송에도 편리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이는 대립산성의 위용을 더해 주고 있다.

셋째, 대립산성이 처한 지형적 조건을 보면, 동쪽으로 忠州영액과 남산성을 서로 마주 대하고 있어 당시 남북왕래의 길목인 죽령로와 계림령로로 이어지는 발타재를 통제하기에 가장 좋은 지점에 처해 있다.

특히 산성의 정상부에 위치한 봉수대에서 사방을 조망하면 서북쪽으로 탄금대 토성과 장미산성, 동으로는 남산성, 서남쪽으로 문주리산성과 용관동산성이 서로 마주보고 있어 적의 이동을 관찰·방어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점이 그것이다.

넷째, 대립산성은 충주관내의 여러 성중 농지면적(현 5,800坪)이 가장 크며, 또한 식수원이 풍부한 성내의 우물과 서쪽면에 달천을 끼고 있어 많은 사람과 군마가 함께 장기간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향산리 지역 村老들로부터 구전되어오는 ‘충주바위’의 전설이 주목을 끈다. 즉 ‘충주바위’는 『고려사』 열전에 전하는 충주 부사 于宗柱<sup>20</sup>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종주는 몽고 제 1차 침입시 양반별초를 인솔하고 몽고군과 싸운 인물이다.

‘충주바위’는 현지에서 ‘너럭바위’로 칭하고 있는데 이 전설은 구전에 불과하지만 전설이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하면 대립산성은 항몽전쟁과 관련되는 ‘충주산성’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보겠다.

여섯째, 『충주 대립산성 정밀지표조사 보고서』(1997)에 의하면 성내에서 웅장한 건물지의 초석이 확인되고, 특히 고려 계통의 와편과 토기 등의 유물이 주류를 이루어 출토된다는 것은 충주관내의 여러 성중에서 대립산성이 ‘충주산성’일 가능성을 크게 뒷받침해 준다고 보겠다.

일곱째, 조선조의 『世宗實錄地理志』, 『東國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增補文獻備考』, 『輿地圖書』, 『大東地志』 등의 산천 고적 성지조에 보면, 대립산을 충주의 진산으로 기록해 놓았고, 대립산성을 충주읍성 다음으로 기록할 정도로 인식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립산성이 충주에서 가장 중시된 성이었다는 점 역시 그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생각된다.

## 5. 맺음말

---

20) 『高麗史』 권103, 열전 李子成.

지금까지 대림산성의 위치와 형태, 축성시기, 특히 대몽항쟁의 거점이었던 ‘충주산성’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대림산성은 삼국시대이래 남북왕래의 길목으로 수륙 교통이 편리한 군사적 요지에 축성되었다. 즉 지형적으로 산세가 험준한 배산 임수의 자연 조건을 최대한 활용, 소수의 병력으로 적을 방어, 차단하거나 장기 항전을 벌이기에 유리하며, 적의 접근과 공격이 어려운 지점에 축성되었다.

성의 형태는 남쪽으로 향한 계곡을 두른 전형적인 포곡식 토석혼축성으로 성의 구조는 현재까지 확인된 건물지, 문지, 봉수대, 치성, 우물지, 망루, 장대, 회곽도 등으로 보아 산성의 기본 형태를 두루 갖추고 있으며, 성내에 비교적 넓은 면적의 농경지와 풍부한 식수원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성의 축성시기는 성의 구조나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에 의하면,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5~6세기 이래 성 지배의 주인이 백제·고구려·신라·고려·조선으로 바뀔 때마다 개축·수리·증축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있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충주지역에서는 지리적 조건과 성의 구조나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대림산성과 장미산성이 가장 중시되었던 성으로 볼 수 있다. 대림산성을 ‘충주산성’과의 관련성을 종합해 볼 때 ① 성의 규모, ② 충주읍성과의 거리, ③ 수륙 교통의 편리성, ④ 전략적 군사요충지로서의 조건, ⑤ 풍부한 식수원 확보, ⑥ 구전되어 오는 전설, ⑦ 성내의 건물지와 출토 유물, ⑧ 조선조 각종 지리지 등에 언급된 대림산(산성)의 위상 등을 종합, 충주관내의 다른 성들과 비교해 보면 대림산성을 ‘충주산성’으로 비정해 볼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나 향후 보다 객관적인 확인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대림산성의 발굴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점으로 관계 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